

1994년 『조선예술』 연극 읽기

연초 국립연극단은 작년 국립연극단에서 올린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의 경험을 되살려, 올해 연극 《태양의 노래》를 올리고,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를 다시 창조할 계획이라 밝힌다. 가극단 역시 1993년도에 창작된 혁명가극 《백양나무》를 더 한층 성숙하게 완성하여,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새로운 가극도 창작**”하겠다고 한다. 이미 가극대본은 완성단계에 들어갔고 창작단의 결의 또한 높아 무용도 성과적으로 찾아지고 있다고 밝힌다. 그런데 이들의 계획은 1994년에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으로 예술계의 신년계획은 차질을 빚은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전

1월, 3월, 7월에 연극과 가극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를 열심히 회고함으로써 연극계는 그들 부자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평론은 1월, 3월, 4월, 7월에 한편씩 실렸는데, 이중 작품에 대한 평론에는 1월 김기욱의 <풍성한 결실, 빛나는 예술적 화폭- 제5차 전국연극축전작품을 보고 ->와 4월 리성덕의 <원형인물의 극적전형화에서 얻어진 교훈- 단막극 <한가정>과 <해당화>를 두고 ->가 있다. 김기욱은 1993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5차 전국연극축전작품이(작년 작품의 연극평이 올해에 실림) 4차에 비해 1.장막, 중막, 단막, 소품 등 다양한 극작품들이 공연된 점과, 2. 각 작품이 당의 업적을 잘 반영하였다는 점, 3. 충성의 대오가 튼튼히 마련된 점을 들어 상찬한다. 실상 이 같은 극찬은 이미 익숙한 것이라 특별할 것은 없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이 밖에도 각 작품이 거둔 성과로 1.주체적 문예이론의 요구를 구현하여 부정과 갈등이 없이 동시대 인간과 사회주의 현실을 견인력 있게 형상화한 점, 2. **연출가들이 대본작업부터 작가와 공동작업을 시작한 점**, 3. 연기에서 우리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개성적으로 잘 그린 점, 등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출가와 작가의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북한 연극계에서 희곡의 위치가 이전과 같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단서이다. ‘공동창작’이란 현장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공동작업’이란 작품분석과 리딩의 단계, 그리고 블락킹의 단계에서 희곡의 결함이나 논리의 모순이 발견되었을 경우, 연출가와 작가가 합의하에 장면을 수정, 보완,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희곡은 해석해야 할 정전이 아니라, 변형 가능한 미완성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목할 북한 연극계의 변화이다. 해방직후부터 북한은 항상 공연보다는 희곡에 중요점을 얹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가 현재까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8, 9, 10, 11, 12월의 5개월간 연극이나 가극에 대해서는 어떤 평론도, 관평도 실리지 않는다. 교예에 관한 글 3편이 이 5개월간을 통틀어 실렸을 뿐이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정지시키는 대격변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연극계는 확실히 암흑기라고 보아야 한다. 작년 1993년에 새로운 5대 혁명연극, 혁명가극을 만들자고 한 야심은 무기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2의 연극 부흥기를 꿈꾸는 연극인들의 열망은 접혀진 것이다.

(* 주의 : 1994년에 조선예술에는 없지만, 1995년에 글에 의하면 1994년 김일성을 잃은 슬픔을 딛고 <소원>을 창조했다고 하여 이것을 혁명연극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평가한다.)